



# 투수왕국 KIA... 던지면 역사다

‘호랑이 군단’의 마운드 기록이 새로 써진 한 주였다. 타이거즈는 한때 투수 왕국으로 통하며 리그를 호령했다.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과 10년 연속 10승에 빛나는 ‘잠수함’ 이강철은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레전드다. KIA 조계현 단장도 ‘팔색조’로 명성을 날렸던 스타 선수였고, 1군과 재활군을 담당하는 이대진·김정수 코치는 각각 ‘에이스 오브 에이스’와 ‘가을 까치’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은 투수 왕국의 일원이었다.

투수 왕국은 쇠락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윤석민이 투수 4관왕과 함께 2011시즌 MVP로 화려한 조명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양현종이 정규시즌·포스트시즌 MVP와 골든글러브까지 품에 안으면서 사상 첫 ‘트리플 크라운’의 위업을 달성했다.

지난해와 달리 선발진의 힘이 떨어진 올 시즌에도 투수 왕국의 기록은 이어지고 있다.

1995년 진흥고를 졸업하고 남다른 ‘아기 호랑이’로 주목을 받았던 임창용은 돌아온 친정에서 야구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지난 5월 13일 임창용은 삼성을 상대로 1점 차 승리를 지키면서 최고령 세이브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다. 41세 11개월 9일로 최고령 기록을 갈아치운 임창용은 이후 6월 7일 kt전까지 3개의 세이브를 추가하면서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더욱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냈다.

롯데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나온 임창용은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세 번째 선발 도전 끝에 승리투수가 됐다. 3998일 만의 선발승이자 타이거즈에서는 처음 기록한 선발승이었다. 또한 42세 1개월 28일

**임창용**

5월 삼성에 1점차 승부 지키며 최고령 세이브  
1일 롯데전 5이닝 1실점 2번째 최고령 선발승

**양현종**

지난해 사상 첫 ‘트리플 크라운’  
주말 타이거즈 좌완 사상 첫 5년 연속 10승

에 선발승을 신고하면서 한화 송진우(42세 6개월 28일)에 이어 KBO리그 역대 2번째 최고령 선발승 자리에 이름을 새겼다.

임창용은 최고령 세이브와 두 번째 최고령 선발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한 시즌에 나란히 작성했다.

타이거즈 좌완 최다승과 첫 100승 등 매년 타이거즈 좌완 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는 양현종도 다시 한번 전광판에 자신의 기록을 띄웠다. 양현종은 4일 두산과의 홈경기에 선발로 나와 6이닝 3실점의 호투로 시즌 10승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타이거즈 좌완 사상 첫 5년 연속 10승이라는 기록이 완성됐다.

양현종은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7승을 챙기면서 다승 단독 1위

까지 치고 올랐었다. 빠른 속도로 승수를 쌓았지만 이후 10승까지 가는 걸음이 더뎠다.

5월 20일 7승에 성공한 뒤 두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7.2이닝 4실점으로 선전했지만 2패만 기록했다. 6월 7일 kt전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8승에 성공한 양현종은 4번의 도전 끝에 7월 3일 한화전에서 9승을 올렸다.

그러나 7월 더위와 함께 양현종의 매서움이 떨어졌고, 앞선 4경기에서 5.0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4경기에서 23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3개의 피홈런 포함 23개의 피안타를 남겼고, 무엇보다 볼넷 개수가 증가했다. 7월 22일 kt전에서 5이닝 동안 6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4경기에서 11개의 볼넷을 기록했다. 탈삼진 개수는 19개.

하지만 양현종은 8월 첫 등판에서 선두 투수의 타자들을 6이닝 3실점으로 묶으면서 마침내 10승 고지에 올랐다.

타이거즈 마운드에 굽적한 기록을 새긴 임창용과 양현종, 그들의 역사 쓰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한편 4일 챔피언십필드 마운드에는 웃지 못할 KBO리그 신기록도 작성됐다.

이날 두산 선발로 등판했던 후랭코프가 1회말 선두타자 버나디 나와의 승부에서 2구째 직구를 머리에 맞히면서 자동 퇴장됐다. 2구 만에 마운드에 몰려난 후랭코프는 선발 최소 투구 퇴장 기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앞선 기록은 LG 임찬규가 지난해 6월 18일 광주 KIA전에서 기록한 16구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강정호, 시즌 아웃

왼 손목 수술... 4~6주 재활 필요



강정호(31·피츠버그 파이리츠·사진)가 왼손목 수술을 받았다.

MLB닷컴은 지난 4일 피츠버그 구단의 발표를 인용해 “강정호가 오늘 왼쪽 손목의 괴사한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4~6주 재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까지 강정호는 꽤 많은 고민을 했다.

강정호는 음주 운전으로 인해 취업비자를 받지 못했고, 2017시즌을 통째로 쉬었다. 올해 4월 극적으로 미국 취업비자를 받은 그는 마이너리그 싱글A 7경기 타율 0.417(24타수 10안타)로 활약한 뒤 트리플A로 승격했다.

하지만 6월 20일 노퍽 타이즈(볼티모어 산하)와의 경기에서 2루 도루를 시도하다 왼쪽 손목을 다쳤다. 예상보다 부상이 심각했고, 결국 한 달 넘게 실전을 치르지 못했다.

부상을 당한 시점부터 의료진은 강정호에게 수술을 권했다. 강정호는 재활 프로그램으로 부상을 털어내고자 했지만 8월 1일로 예정된 재활 경기에 손목 통증을 못 견디고 나서지 못한 뒤, 수술을 결심했다.

MLB닷컴은 강정호의 복귀 시점을 9월 중순으로 점쳤다. 빅리그 재입성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와 계약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2015년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강정호는 당시 피츠버그와 4+1년 계약을 했다.

2019시즌에는 구단이 강정호와 1년 계약 연장 여부를 택한다. 피츠버그가 강정호와 1년 계약을 연장하면 연봉 5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구단이 계약을 해지하면 25만 달러를 받는다.

강정호가 9월 중순에 돌아와서 보여준 것 없이 시즌을 마치면 피츠버그가 기존 계약에 따른 1년 연장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럴 경우, 강정호는 새로운 팀을 찾거나 피츠버그와 더 열악한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

## “만리장성 넘는다” 남자탁구의 자신감

아시안게임 단체전 28년만에 금메달 도전  
지난달 코리아오픈 세계 1위 완파...사기 충전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영광을 재현하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남자탁구 대표팀이 28년 만의 단체전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김택수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은 이상수와 김동현(이상 국군체육부대), 정영식·장우진(이상 미래에셋대우), 임종훈(KGC인삼공사)을 앞세워 아시안게임 단체전에 나선다.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녀 단식과 남녀 단체전, 혼합복식 등 5개 종목에 금메달이 걸려 있다.

지난 주말 호주오픈에서 혼합복식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란히 따낸 이상수-전지희(포스코에너지)조와 임종훈-양하은(대한항공)조가 금메달에 도전장을 냈다. 단식은 중국의 벽이 워낙 높아 메달 사냥이 쉽지 않지만 남녀 단체전에서는 메달 사냥 기대가 크다.

남자대표팀이 내건 단체전에서 공식적인 목표는 ‘결승 진출’이다. 하지만 김택수 남자대표팀 감독은 단체전에서 28년 만의 금메달 획득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코리아오픈과 호주오픈 등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었다”며 “중국이 워낙 강세이지만 선수들에게 1990년 대회에 이은 금메달에 도전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때는 김택수 감독과 유남규 삼성생명 감독이 주축으로 나서 만리장성을 허물고 금메달을 땀다.



올해 5월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단체전 8강에서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자탁구 대표팀 선수들과 김택수 감독(왼쪽에서 4번째)

중국을 현재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랭킹 1위인 판젠둥과 호주 오픈 단식 챔피언인 쉬신(세계 2위) 등 최강 전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지난달 코리아오픈에서는 장우진이 쉬신을 단식 16강에서 4-1로 완파하며 우승하는 ‘테이블 반란’을 일으켰다.

또 남자대표팀은 지난 5월 스웨덴 할름스타드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본을 꺾고 값진 동메달을 수확하며 기대를 부풀렸다.

안재형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대표팀도 이번 아시안게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안방에서 열렸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북한과 단

체전 8강 남북대결에서 1-3으로 져 메달 사냥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여자대표팀은 지난 5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남북 단일팀으로 함께 준결승에 올라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전지희와 양하은, 서효원(한국마사회), 최효주·김지호(이상 삼성생명)가 단체전 메달 획득 선봉에 선다. 특히 이번 대회에 일본이 이시카와 카스미(세계 4위)와 이토 미마(세계 6위), 히라노 미유(세계 9위) 등 주축 선수들을 파견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 ‘1회전 충격패’ 윌리엄스 내주 로저스컵 기권 선언

24년의 프로 경력 역사에 남을 참패를 당한 세리나 윌리엄스(26위·미국)가 다음 주 개막하는 여자 프로테니스(WTA) 투어 로저스컵(총상금 282만 달러) 기권을 선언했다.

대회 주최 측은 윌리엄스가 5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막하는 로저스컵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전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메이저대회 여자단식 통산 23회 우승을 차지한 윌리엄스는 지난달 뽀돌랜드 준우승을 차지하며 2017년 출산 이후 성공적인 코트 복귀에 성공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1일 요해나 콘타(48위·영국)와 무바타라 실리온 벨리 클래식 단식 1회전에서 0-2(1-6 0-6)로 완패했다.

1995년 프로 무대에 뛰어들던 그가 한 게임밖에 따내지 못하고 완패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부상이 재발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부터 이날 말 열리는 US오픈을 준비하기 위해 재충전 시간을 가지는 거라는 추측도 나온다.

윌리엄스가 통산 6차례 우승한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오픈은 28일 미국 뉴욕에서 막을 올린다.

/연합뉴스